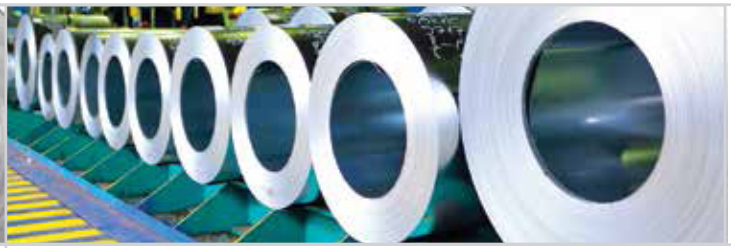
자동 윤활 시스템으로 오일 소모량을 줄여 연간 45,000달러 이상 절감하는 알미늄 제조업체





문제점:

식품 및 음료수 용기용 알미늄 제조업체인 Golden Aluminum은 분당 최대 300미터까지 이동하는 30인치(760 mm) 폭의 공급 원료를 윤활유로 코팅해야 했습니다. 윤활유는 텐션 레벨러에 있는 시트를 보호하며 레벨러를 따라가는 작업 롤의 마모를 줄입니다. 이전의 시스템은 오일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비용 낭비가 크고 교대조 직원마다 초과되는 윤활유를 여러 번 처리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고압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텐션 레벨러 주변에 미끄럽고 위험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전 문제는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따금 개방되는 시스템에 공급하는 압력 탱크였습니다.

해결 방법:

우리의 AutoJet® L210 윤활 시스템은 Golden Aluminum 사의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텐션 레벨러 입구에 35인치(900 m) 코일 윤활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윤활장치에는 6개의 일류체 UniJet® 노즐이 있으며, 각 노즐에는 공기 구동식 피스톤 펌프에 의해 개별적으로 연료가 공급되므로 공급 원료를 골고루 도포할 수 있습니다. 코일 윤활장치에는 비산이 주변 영역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오일 미스트 익스트랙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베이스 유닛에 장착된 펌프는 작동 중에도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비압축형 35리터 탱크에서 윤활유를 끌어올립니다.

